

2020년 9월 23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돌아온 대형기술주의 강세로 상승

아마존 +5.69%, 페이스북 +2.66%, 알파벳 +2.08%, 애플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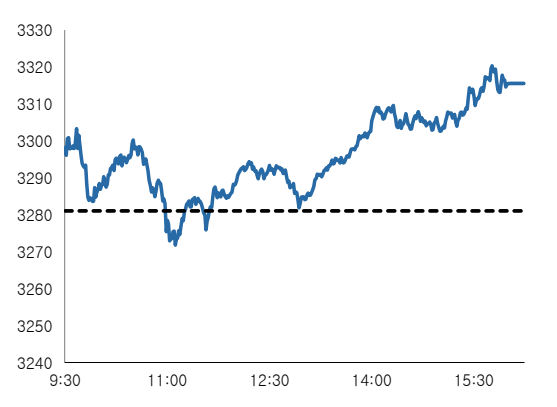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대형 기술주 Vs. 금융, 헬스케어, 에너지

미 증시는 지표 호전과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대형 기술주 위주로 강세를 보이며 상승 출발. 그러나 대법관을 둘러싼 정치 불확실성과 코로나 우려로 장중 한 때 하락 전환하기도 했음. 더불어 파월 연준의장이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한 점도 부담. 그러나 그동안 낙폭을 키웠던 대형 기술주가 투자 의견 상향 속 강세폭을 확대하자 상승폭 확대(다우 +0.52%, 나스닥 +1.71%, S&P500 +1.05%, 러셀 2000 +0.79%)

미 하원에서 파월 연준의장과 므누신 재무장관의 연준의 대출 프로그램과 관련된 증언이 있었음. 연준은 약 3 조 달러 규모의 대출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으나 사용 실적이 미미하다고 의원들은 비판. 특히 6 천억 달러 규모의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20 억 달러만 이뤄졌다며 진입 장벽을 낮출 것을 요구. 이에 대해 므누신은 최소 10만 달러로 하향 해야 한다고 긍정적으로 언급 했으며 2 천억 달러는 다른 목적으로 용도 변경을 위해 의회가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파월은 기업들이 100 만 달러 미만에 관심이 미미하다며 조정 가능성을 일축. 오히려 연준의 정책 변경보다는 정부가 추가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고 정부의 추가 부양책을 요구. 특히 파월은 정부의 재정 부양책이 중단된 데 부정적인 영향이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기 회복 둔화 우려를 표명. 물론 재정 부양책이 나온다면 통화정책과 더불어 경기 회복 속도를 빠르게 이끌 것이라고 주장해 정부에 압박을 가함

한편, 미국의 코로나 관련 사망자 수가 20 만명을 넘어서자 관련 우려가 부각. 문제는 IHME(보건계측 평가 연구소)가 경제 재개 확대에 4 분기에 하루 사망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미 대선과 더불어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물론 당장 오늘 미 증시에는 장 중 영향에 그쳤으나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함. 이런 가운데 최근 낙폭을 키웠던 아마존(+5.69%), 페이스북(+2.66%) 등 대형 기술주에 대해 매력적인 매입 구간에 돌입 했으며,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한꺼번에 발표되자 강세를 보이며 미 증시 반등을 이끔. 결국 미 증시는 파월의 발언과 코로나, 대법관 둘러싼 마찰이라는 부정적인 요인에도 이러한 대형 기술주의 강세로 상승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2,332.59	-2.38	홍콩항셱	23,716.85	-0.98
KOSDAQ	842.72	-2.80	영국	5,829.46	+0.43
DOW	27,288.18	+0.52	독일	12,594.39	+0.41
NASDAQ	10,963.64	+1.71	프랑스	4,772.84	-0.40
S&P 500	3,315.57	+1.05	스페인	6,648.60	-0.65
상하이종합	3,274.30	-1.29	그리스	624.62	-0.90
일본	23,360.30	+0.18	이탈리아	18,895.59	+0.5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

아마존(+5.69%)은 번스타인이 온라인 소매 수요의 힘을 과소평가했다고 발표하고 매력적인 매수 구간으로 진입했다며 투자의견을 상향 조정하자 강세를 보였다. 애플(+1.57%)은 씨티그룹이 애플워치에 대한 잠재력을 기반으로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자 강세를 보였다. 페이스북(+2.66%)은 오픈하우스가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자 강세를 보였다. 콤케스트(+3.38%)는 일부 투자회사가 지분 매입 소식과 경영진과의 대화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했다. 중고차 판매 업체인 카르바나(+30.61%)는 투자의견 상향 조정과 3분기에도 강력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자 급등했다.

니콜라(+3.37%)는 밀턴 전 CEO의 FBI 체포설을 부정하고 밀턴 사임에도 불구하고 바뀐 것은 없다는 발표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했다. 운동기구 업체인 펠로톤(-0.42%)는 경쟁회사가 신제품을 발표하자 하락했다. 일루미나(-0.60%)는 Grail 인수 계획에 대한 우려 표명 속 투자의견 하향 조정으로 하락했다. JP모건(-1.09%) 등 금융주는 여전히 불법자금 관련 이슈에 따른 규제 강화 가능성이 부각되자 하락세를 이어갔다. 유나이티드 헬스(-1.65%) 등 헬스케어 업종은 의료법 관련 이슈가 부각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테슬라(-5.60%)는 배터리데이 앞두고 머스크가 일부 부정적인 내용을 발표한 여파로 하락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82%	대형 가치주 ETF(IVE)	+0.08%
에너지섹터 ETF(OIH)	-0.30%	중형 가치주 ETF(IWS)	+0.66%
소매업체 ETF(XRT)	+2.68%	소형 가치주 ETF(IWN)	+0.15%
금융섹터 ETF(XLF)	-0.84%	대형 성장주 ETF(VUG)	+1.64%
기술섹터 ETF(XLK)	+1.58%	중형 성장주 ETF(IWP)	+1.30%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2.25%	소형 성장주 ETF(IWO)	+1.16%
인터넷업체 ETF(FDN)	+2.64%	배당주 ETF(DVY)	-0.35%
리츠업체 ETF(XLRE)	+1.25%	신흥국 고배당 ETF(DEM)	-0.92%
주택건설업체 ETF(XHB)	+2.00%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65%
바이오섹터 ETF(IBB)	+0.76%	미국 국채 ETF(IEF)	0.00%
헬스케어 ETF(XLV)	-0.21%	하이일드 ETF(JNK)	+0.32%
곡물 ETF(DBA)	-0.41%	물가연동채 ETF(TIP)	+0.02%
반도체 ETF(SMH)	+0.82%	Long/short ETF(BTAL)	+0.78%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39.96	-1.03%	-1.34%	-13.33%
소재	398.76	+0.21%	-4.08%	+0.78%
산업재	647.93	+1.03%	-2.27%	-1.25%
경기소비재	1,190.32	+2.96%	-2.24%	-3.23%
필수소비재	650.53	+0.64%	-2.10%	-1.97%
헬스케어	1,201.45	-0.19%	-2.68%	-2.83%
금융	394.88	-0.84%	-3.46%	-4.28%
IT	2,010.71	+1.65%	-1.69%	-3.76%
커뮤니케이션	194.47	+1.88%	-3.45%	-3.93%
유틸리티	295.14	+0.64%	-2.75%	-2.67%
부동산	216.76	+1.26%	-5.04%	-2.7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테슬라의 영향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1.53% MSCI 신흥 지수 ETF 는 0.75% 하락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63.7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국 증시는 연준이 추가 유동성 공급에 대해 신중함을 표명한 9 월 FOMC 이후 자그마한 악재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다. 여기에 니콜라 사태로 인해 그동안 장미빛 전망 속 유동성에 의해서 강세를 보여왔던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이 컸다. 전일 한국 증시는 영국의 2 차 섯다운 우려 및 유동성 관련된 우려가 높아지며 낙폭이 컸다.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인 점은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여전히 파월 연준의장이 하원 청문회에서 추가 부양책에는 신중함을 보이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어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미 증시 마감 후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결과가 발표된다. 시장이 기대했던 자체 배터리 생산 청사진인 로드러너 프로젝트 공개 및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기술, 그리고 독일 베를린 "기가 팩토리",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테라 팩토리", 그리고 중국 기가 팩토리의 생산 계획등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발표되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결과 테슬라의 시간외 변화가 중요하다. 이는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미빛 전망으로 강세를 보였던 기업들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져 투자심리 개선 기대가 높일 것인지 아니면 차익 욕구를 높일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외국인의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주택지표 개선세 지속

8 월 미국 기존 주택판매는 전월(586 만건)이나 예상(596.5 만건)을 상회한 600 만건을 기록해 전월 대비 2.4%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0.5% 증가했다. 재고는 3 개월로 지난달 3.1 개월 보다는 소폭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 수치(4 개월) 보다도 감소했다. 중간 판매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1.4% 상승한 31.6 만달러를 기록했다. 주택가격은 대형 산불로 인한 목재가격 급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9 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지수는 전월(18)이나 예상(12) 보다 개선된 21 로 발표되었다. 신규수주가 전월의 15 에서 27 로 상승하는 등 향후 전망 또한 긍정적이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파운드화, 존슨 총리의 경제 재개 축소 여파로 달러 대비 약세

국제유가는 전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 0.7% 상승했다.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급증과 영국의 경제 재개 축소 등으로 수요 부진 우려가 높아졌고, 리비아의 산유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소식 등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그러나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는 이어지며 결국 상승으로 마감 했다.

달러화는 경제지표 개선과 파월 연준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신중함을 표명하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존슨 총리가 저녁 10시 이후에는 펄과 식당 등의 영업을 금지하는 발표를 했고, 이 기간이 코로나 상황 개선이 없으면 6개월간 유지 될 것이라고 주장하자 경기에 대한 우려 속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경제지표 개선 및 연준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신중함 표명, 주가 지수의 강세로 상승했다. 한편, 파월 연준의장은 의회 청문회에서 정부의 재정지원 종료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으며, 에반스 시카고 총재는 몇 년 동안 부양책이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고용 개선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해 단기물은 하락했다. 2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 평균(2.59 배)를 하회한 2.42 배를 기록하며 채권 수요가 둔화된 점도 금리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달러 강세 및 주식시장 강세 여파로 소폭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로 하락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26% 하락했으나 철근은 0.44%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39.80	+0.66	+3.24	Dollar Index	93.956	+0.32	+0.97
브렌트유	41.72	+0.68	+2.94	EUR/USD	1.171	-0.52	-1.16
금	1,907.60	-0.16	-2.98	USD/JPY	104.96	+0.30	-0.46
은	24,523	+0.56	-10.71	GBP/USD	1.2738	-0.62	-1.17
알루미늄	1,776.50	-0.17	-0.73	USD/CHF	0.9195	+0.55	+1.26
전기동	6,780.00	+1.32	+0.27	AUD/USD	0.717	-0.75	-1.81
아연	2,464.50	+0.24	-1.28	USD/CAD	1.3303	-0.04	+0.89
옥수수	369.25	-0.14	+0.89	USD/BRL	5.4836	+1.27	+3.91
밀	558.00	+0.59	+3.67	USD/CNH	6.785	-0.12	+0.07
대두	1,019.75	-0.27	+2.85	USD/KRW	1165.00	+0.60	-1.19
커피	110.65	-1.21	-9.15	USD/KRW NDF1M	1163.71	-0.10	-1.41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669	+0.33	-0.98	스페인	0.233	-1.70	-3.50
한국	1.467	-2.80	-3.30	포르투갈	0.255	-1.20	-4.00
일본	0.015	0.00	-0.60	그리스	1.049	-2.40	-3.20
독일	-0.505	+2.50	-2.60	이탈리아	0.864	-5.30	-13.30